

명의의 건강비법

— 선생님의 건강, 안녕하십니까? —

02. 간암에 대한 오해와 예방법



1. 간암 조기검진의 중요성

1) 간암의 원인

- B형 간염
- C형 간염
- 알코올성 간 질환
- 그 외에는 원인 불명

2) 간암 조기검진 방법

- B형 간염, C형 간염 보유자 및 고령의 남성은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음
-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간 건강 검진을 받으면 됨
- 간암은 조기 발견이 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함

3) 간암 생존율 증가 원인

- 간암 조기 발견이 증가하였고 조기 발견으로 인해 간 이식 성공률이 80% 이상임
- 의료 기술과 수술법이 발달함
- B형 간염 예방 접종의 증가로 간암의 원인인 간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됨

2. 간암의 오해와 진실

1) 간암의 유전 여부

- 간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B형 간염은 B형 바이러스 보유자인 어머니에게서 감염되는 것이지 유전되는 것이 아님
-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인한 전파이며 위생 관리가 중요함

2) B형 간염 항체 수치 하락 가능성 여부

- B형 간염 항체 보유자라도 시간이 지나면 항체의 수치가 낮아질 수 있음
-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다시 하면 B형 간염 항체의 수치가 상승함

3) 민간요법의 부정적인 부분

-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독성물질이 간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
- 민간요법에 의한 시간 지체로 완치 기회를 놓칠 수 있음

4) 간 이식 시 간암 재발 여부

- 간 이식의 경우 간을 모두 떼어내는 것이므로 간암 초기에 간 이식을 받으면 거의 재발하지 않음
- 간 절제술을 받으면 간암의 재발은 높은 편임

2. 간암의 오해와 진실

5) 간이식 공여자의 간 기능 저하 여부

- 간은 재생을 잘 하는 장기이므로 간 절제로 인한 간 기증자의 간 기능 저하는 절대 없음
- 간 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 기증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면 안 됨

6) 오해와 진실

Q1. 동물의 간을 먹으면 간암을 완치할 수 있다? → X

- 동물의 간과 간암은 전혀 상관없음
- 동물의 생간을 섭취할 경우, 기생충이 생기거나 세균 번식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

Q2. 해장국은 간을 해독해 준다? → O

-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먹으면 해독해 줄 수 있음
- 다만, 과하거나 기름지면 오히려 간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

3. 간암 예방법

- 1) 간암의 원인이 되는 B형 간염의 감염을 막아야 함
(모자감염을 막아야 함)
- 2) B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
 - 어렸을 때 치료할 필요는 없고 B형 간염이 발현되는
청장년기에 치료하면 간경변, 간암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
 - B형 간염이 있는 경우 음주, 과도한 체중 등을 지양해야 하며
생활 수칙을 잘 지켜야 함
- 3) B형 감염자와 같이 간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면, 6개월에 한 번씩
정기검진을 받아야 함